회상기그림책



림강현 외차구전투

금성청년출판사
주체108(2019)

회상기그림책

림강현 외차구전투

금성청년출판사
주체108(2019)

차　　례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자라며 용감하게 싸운 아동단원들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자라며 용감하게 싸운 아동단원들》은 항일혁명투사 황순희선생님의 회상기를 각색하여 편집하였습니다.



1933년 여름에 있은 일이다.

혁명조직에서는 적통치구역에 있는 로두구경찰서 내부를 정탐해올데 대한 과업을 아동단원들인 김동철소년과 다른 한 소년에게 주었다.

조직에서 그들에게 준 임무는 경찰서안의 구조는 어떻게 되여있으며 보초는 어떻게 서고 놈들의 인원은 얼마나 되며 무기는 어떤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것이였다.







아동단원들은 처음 이 과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잘 몰랐다. 그렇다고 조직에서 준 과업을 그만둘수는 없었다.

그들은 여러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내였다.





그것은 공을 하나 사가지고 경찰서앞에 가서 놀다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안에 들어가기로 하였던것이다. 그 즉시로 그들은 공을 하나 사가지고 서로 빼앗아 찰내기를 하면서 거의 경찰서보초앞에까지 갔다. 정문보초놈은 끄떡끄떡 졸고있었다.





이때 아동단원 동철이는 공을 잡고 두리를 한번 살펴본 후 경찰서토성안에다 공을 차넣었다.

그들은 우정 공을 차넣고 찾는척 하면서 왔다갔다하였다.

졸고있던 보초놈이 《너희들은 뭐야? 어서 가라.》고 하면서 긴 하품을 하였다.

그러자 한 아동단원이 우정 큰소리로 울면서 공을 찾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다가 경찰서대문안으로 쑥 들어갔다.

















그럴 때에 아동단원 동철이는 공이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보는척 하면서 토성밖에 있는 나무우에 올라가 토성안을 들여다보았다.

보초놈은 그들이 노는것을 보고 웃어댈뿐 공을 찾으러 들어가는 아동단원을 막지 않았다.



토성안에 들어간 아동단원은 공을 찾는척 하면서 토성안의 구조와 포대, 무기수와 인원수를 알아가지고 눈물을 닦으며 정문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적들앞에서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싸우는 척 하다가 돌아와서 알아낸 내용을 조직에 보고하였다.





그후 유격대가 로두구경찰서를 들이쳤는데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단원들은 기발한 지혜와 용감성을 발휘하여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유격대를 도와 적통치구역에 나가서 담벽과 전주대, 장마당과 적의 보초막 지어는 병영안에까지 삐라를 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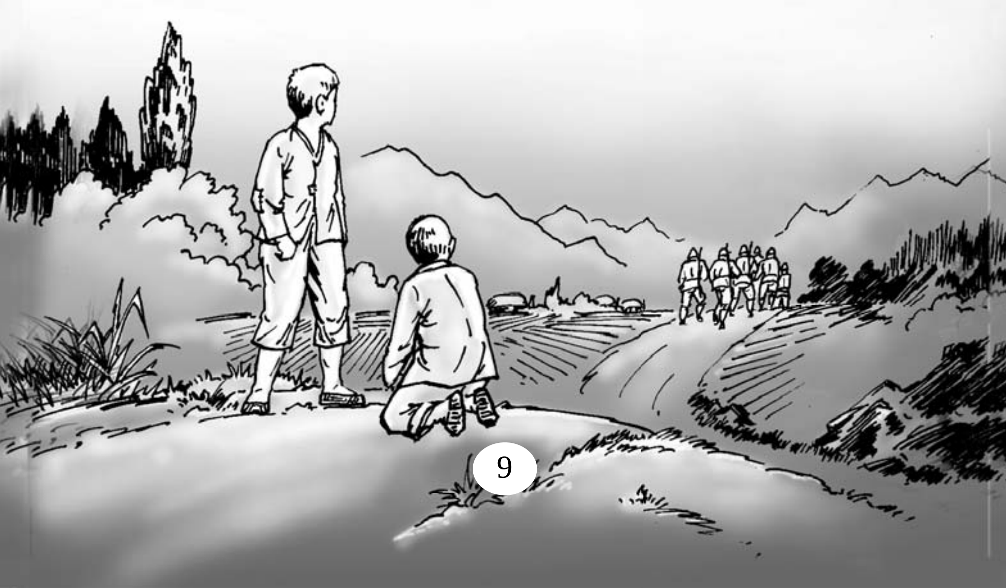






어느날 왕우구에 있는 학교마당에서 두 아동단원이 학생들과 함께 놀면서 놈들을 감시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학교앞으로 일제《토벌대》놈들이 누렇게 올라오고있었다.《토벌대》놈들의 꼴을 보니 장락동쪽으로 올라가려는것이 틀림없었다.







이날 왕우구 장락동의 조직원들은 복남이네 집에서 회의를 하고있었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그곳으로 《토벌대》놈들이 쳐들어가는것이였다. 주구놈이 밀고한것이 틀림없었다.

(놈들이 그리로 올라가면 많은 조직원들이 붙잡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복남이의 가슴은 찢기는듯 했다.







한 아동단원이 복남이를 쳐다보았다.

이럴 때 만약 어느 누가 먼저 뛰여가서 알리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눈치를 챌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말을 못하고 이 궁리 저 궁리 생각을 하였다.

복남이는 한 아동단원인 자기 동무를 보고 《야, 너 요새 기운이 세여졌다지, 어디 한번 씨름해보자.》 하면서 달려들었다.









복남이가 먼저 자기 동무의 허리춤을 잡고 배지기를 하려다가 그만 제김에 나가 넘어졌다. 복남이는 《재수》 없이 졌다는 식으로 자기 동무를 보고 다시 하자고 졸랐다. 그러자 그 동무는 뒤로 물러서며 싫다고 하면서 놈들이 올라가는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복남이는 그의 코등을 주먹으로 치고 냅다 뛰였다.

그의 코에서는 붉은 피가 쏟아져나왔다.



그는 울면서 돌멩이를 쥐고 복남이의 뒤를 따라갔다.

복남이는 쫓기는척 하면서 학교뒤산으로 올리뛰였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은 그들의 뒤모습을 서서 바라보다가 흩어지고말았다.





복남이는 자기를 따라오던 아동단원동무가 산에 올라왔을 때 그에게 말하였다.

《이거 안되였구나. 피가 많이 나와서… 내 빨리 집에 갔다올게.》

그러자 그 아동단원은 나무잎을 뜯어 코피를 닦으며 《괜찮아, 나도 네 마음을 다 알고있어.》라고 대답하고서는 복남이를 힘있게 그러안았다.





복남이는
그바람으로
산을 넘어
곧추 마을쪽으로
내뛰였다. 이렇게 곧추 뛰여가면 《토벌대》놈들보다 더 빨리 마을에 들어설수 있었다.



조직원들은 복남이가 뛰여가 미리 알려주었기때문에 《토벌대》놈들이 달려들기전에 아무 일없이 다 피할수 있었다.





그들이 피한 후 얼마 안 있어 마을에 도착한 《토벌대》놈들은 《독 안에 든 쥐》라고 하면서 조직원들을 다 붙든 것처럼 좋아했으나 결국 놈들은 허탕을 치고 그저 인민들에게 행패질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돌아가고말았다.





이날 두 아동단원들은 혁명조직으로부터 적들의 행동을 살필데 대한 임무를 받고 학교에 갔었다.

이처럼 아동단원들은 정탐활동과 사회여론의 수집, 주구감시 등 어렵고 위험한 혁명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군 하였다.





아동단원들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 아동단원의 고귀한 영예를 빛내였고 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비밀은 아동단원의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조직은 산다!》, 이것은 나어린 혁명가들의 구호였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그들의 굳은 신념이였다.



아동단원들은 공부를 하는데서도 이악했지만 적들의 《토벌》로부터 유격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서도 잘 싸웠다.



내가 유격구역인 왕우구 상촌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두 아동단원이 통신을 가지고 왕청으로 급히 가고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큰 길가에서 급작스레 나타난 일제경찰놈들과 만나게 되였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된 그들은 갑자기 어디에 피할 수도 없게 되였다.







놈들은 다짜고짜로 《어디 갔다오는가? 앙…》 하면서 아동단원들을 때리며 몸을 뒤지려고 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직의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경찰놈들이 몸을 뒤지기 시작할 때 눈신호로 최후의 비장한 각오를 다지였다.



놈들이 통신쪽지를 감춘 곳을 뒤지려는 순간 옆에 서있던 아동단원은 자기 몸에 건사했던 폭탄을 꺼내여 놈들이 둘러선 곳에다 던지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였으며 적 4명을 즉사시키고 3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추운 겨울날이였다.

뒤산마루에서 보초를 서던 강룡남이라는 아동단원은 보초를 교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때 아동단 지부 책임자가 집에 찾아와 지도원선생님이 찾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갔다. 거기엔 박명숙이라는 아동단원도 와있었다.









지도원선생님은 룡남이와 명숙이를 번갈아보더니 똘똘만 종이쪽지를 내놓으면서 말하였다.

《지금 〈토벌대〉놈들이 유격구로 쳐들어오는데 너희들은 우선 이 쪽지를 유격대에 전해야겠다.





이건 보통 통신과 달라서 급하기도 하지만 절대비밀이다. 만약 이 쪽지가 놈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때는 큰일이 난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만은 원쑤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지도원선생님은 가져다줄 장소와 만나는 신호, 그리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나서 다짐을 했다.

《할수 있지? 이것이 원쑤놈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알겠니?》

《예.》

룡남이와 명숙이는 힘있게 대답하였다.









지부책임자와 분대원들은 자기가 썼던 털모자와 수건들을 룡남이와 명숙이에게 씌워주었다. 룡남이 어머니는 감자를 몇개 싸주면서 《잘 다녀오너라. 그리고 비밀을 꼭 지켜라.》 하고 당부하였다.

눈보라가 기승을 부렸으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





룡남이와 명숙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통신련락을 가는것은 아니였다.

그들은 이미 여러번 통신을 날랐는데 어떤 때는 신바닥에 넣고다녔으며 또 어떤 때는 동정깃에다 감춰가지고 다니기도 하였다.

여름에는 파속에다 넣고가다가 놈들이 앞에 나타나면 그것을 씹으며 지나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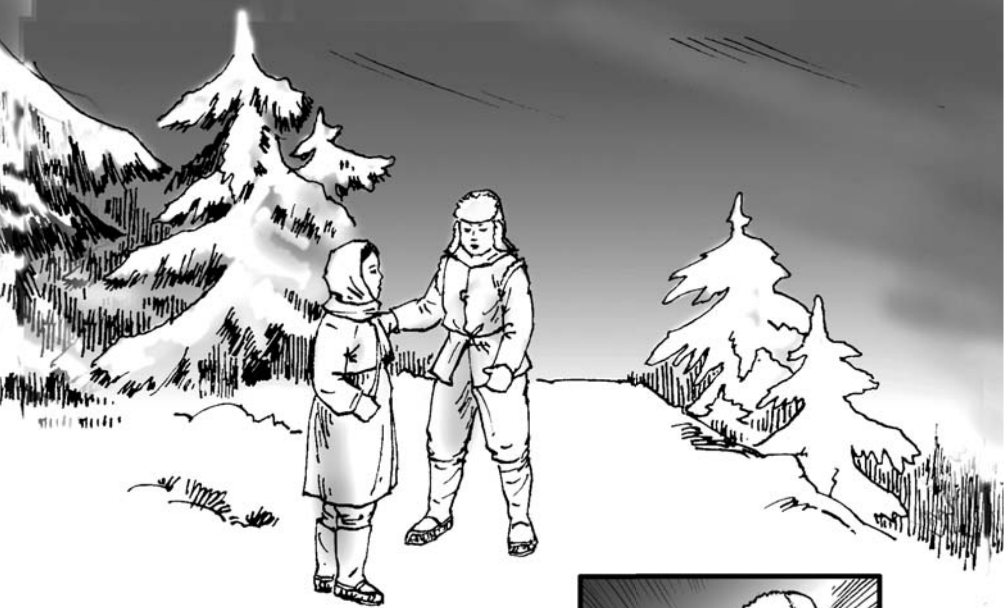


놈들도 아동단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통신련락을 한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놈들을 속여넘기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이것저것 생각하며 걷고있던 룡남이가 통신쪽지를 명숙이의 동정안에 넣은것이 안심되지 않아서 명숙이에게 불쑥 이렇게 물었다.

《명숙아, 너 그 통신쪽지를 다른데 감출수 없니?》

《글쎄, 어디에 감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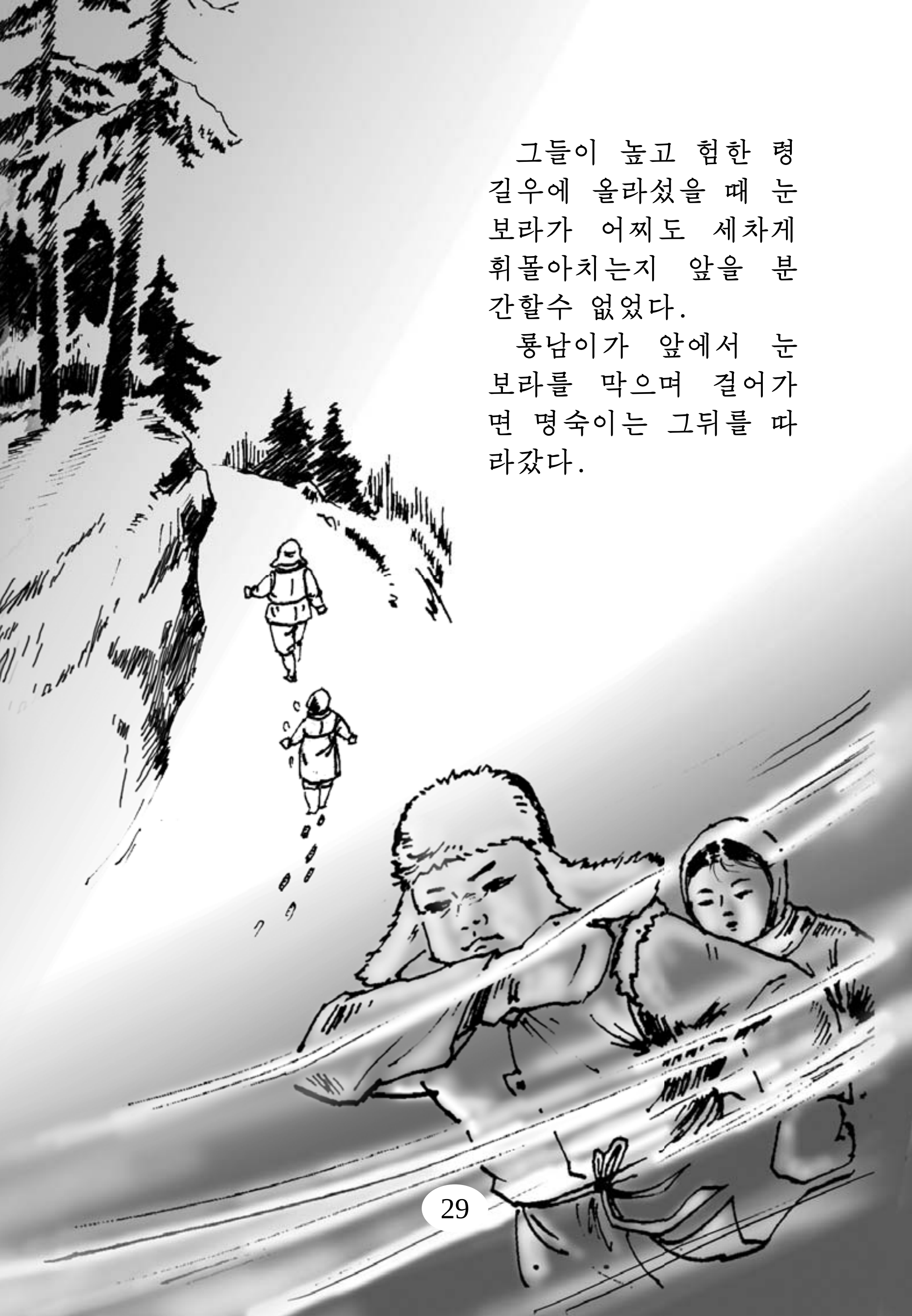
명숙이도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 룡남이에게 되물었다.



《명숙아, 네 머리태속에다 감추자.》

《머리태속에?!》

명숙이는 동정깃에 감춘 쪽지를 머리태속에 넣고는 수건을 썼다.



그들이 높고 험한 령길우에 올라섰을 때 눈보라가 어찌도 세차게 휘몰아치는지 앞을 분간할수 없었다.

룡남이가 앞에서 눈보라를 막으며 걸어가면 명숙이는 그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그들이 길청령어구 개풍거리에 들어섰을 때였다.

그들이 가는 길앞에 말을 탄 적들이 맞받아 오고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놈들을 본 룡남이와 명숙이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놈들도 처음에는 흠칫 놀라더니 나어린 아이들임을 알고 안심되는듯 달래는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델 가니?》

룡남이가 날쌔게 꾸며댔다.

《저희들은 약수동에 살아요. 외삼촌네 집에 갔다오는 길이예요. 이애는 내 누이동생이구요.》



헌병놈은 징글스럽게 상판대기를 찡그리며 《그럼 너는 이애의 오라비로구나. 하하하, 요놈들 내가 누군줄 알고 나를 속여, 내가 모를줄 알구.》라고 하면서 가죽채찍으로 룡남이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왜 때려요. 우리 오빤 아무 죄도 없어요.》

명숙이는 눈물을 짜며 울었다.





헌병놈들은 말에서 뛰여 내려 차고있던 긴칼을 절컥거리며 《요놈들, 바른대로 말 못해. 너희들은 아동단원이지? 이게 안보여, 통신련락을 가댔지?》라고 또다시 물었다.

《통신이 뭔지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룡남이가 우는소리를 하자 말을 타고있던 대장놈이 몸을 뒤지라고 호통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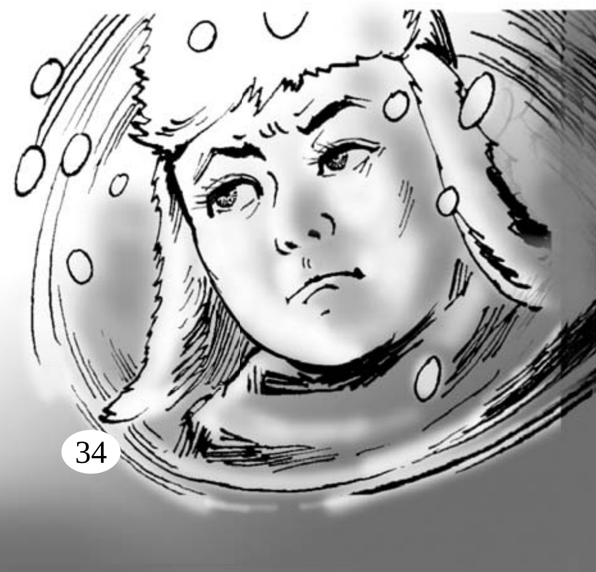




헌병놈들은 룡남이와 명숙이를 따로 세워놓고 신발부터 올리뒤지기 시작했다. 룡남이와 명숙이의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했다.

(어떤 경우에라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통신이 원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떠나올 때 지도원선생님과 어머니가 당부하던 말이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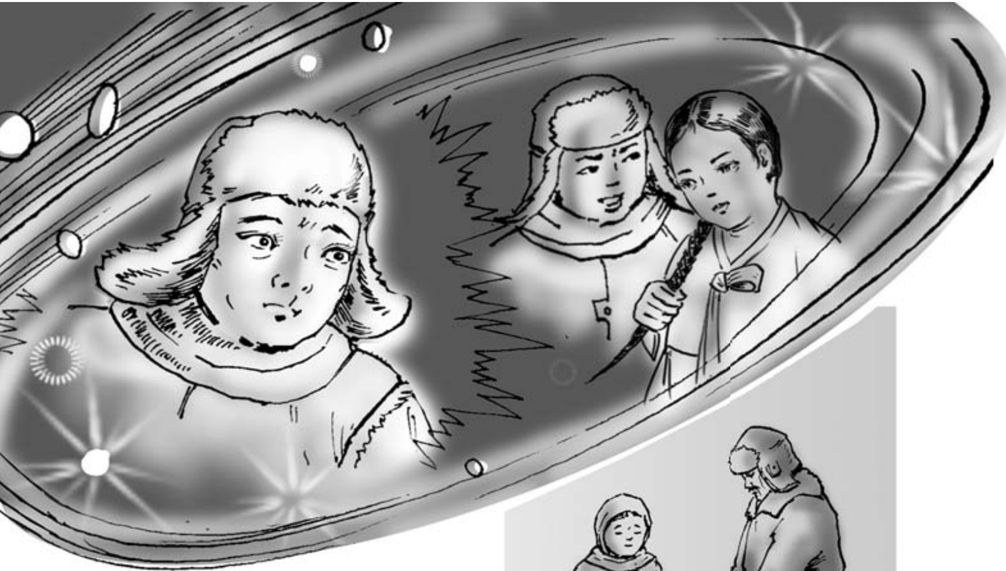




룡남이는 얼핏 생각나서 주머니에 싸넣은 감자를 꺼냈다. 이것을 본 놈들은 수류탄인줄 알고 몇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그것이 감자임을 알게 되자 덮치듯 빼앗았다.

놈들은 그 감자알속에 무슨 비밀이나 있는가 하여 막 짓이겼다.







룡남이는 명숙이쪽만 바라보고있었다. 그런데 명숙이의 버선까지 들추고난 헌병놈은 동정깃을 훑기 시작했다.

(동정깃에 건사했더라면 큰일날번 했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들은 크게 숨을 내쉬였다.







바로 이때 명숙이의 동정깃을 다 훑어보고난 헌병놈은 명숙이가 쓰고있던 목수건을 벗기고 머리태를 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명숙이는 가슴을 누르며 가벼운 비명을 질렀다.







룡남이는 불시에 헌병놈을 안고 쓰러졌다. 너무도 갑자기 달려들었기때문에 그놈도 어쩔수가 없었다.

《명숙아, 빨리 먹어치워. 빨리!》

룡남이는 그놈을 안고 넘어지면서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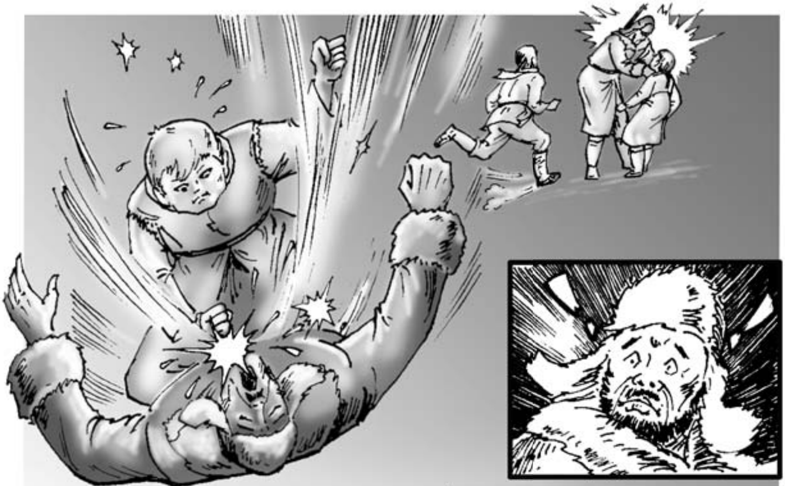




명숙이는 룡남이의 말을 듣고 날쌔게 머리태안에 넣었던 통신쪽지를 입안에 넣었다.

이때 다른 놈이 통신쪽지를 삼켜버리지 못하게 명숙이의 목을 틀어쥐고 놓지 않았다.

명숙이의 얼굴은 금시 새파래졌다. 실로 위급한 순간이였다.





이것을 본 룡남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한놈을 때려눕히고는 명숙이의 목을 틀어쥔 그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그놈은 발길로 룡남이를 걷어찼다.

룡남이는 눈우에 나가 넘어졌다.

그러자 그놈은 명숙이의 입안에 더러운 손가락을 틀어넣었다.







이때 정신이 번쩍 든 명숙이는 그놈의 손가락을 힘껏 깨물었다.





그놈은 《앗!》 하고 죽는 소리를 치며 몸을 빌빌꼬다가 겨우 손을 빼낸후 명숙이의 목을 틀어쥐였던 손마저 놓아버렸다. 그 순간 명숙이는 통신쪽지를 얼른 삼켜버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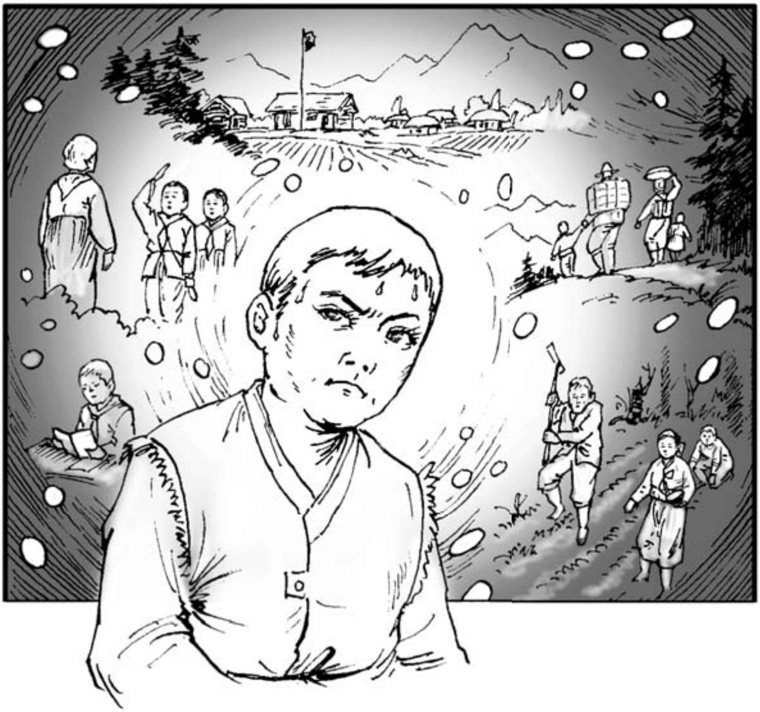
다른 놈이 비밀쪽지를 빼앗으려고 거듭 달려들었으나 이미 명숙이의 입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말우에서 이것을 보고있던 대장놈은 암만해야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것 같으므로 자기 졸병놈들을 밀어치우고는 흉물스럽게 웃으며 《너희들은 아동단원이지?》 하고 물었다.





룡남이는 최후순간이 왔다는것을 느끼였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서 새삶의 길을 찾아 보람차게 살아온 유격구생활의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그리고 고향땅을 떠나 장진땅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이국땅에까지 와서도 일제놈의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피눈물나게 살아온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려보았다.

《어서 말해라.》



대장놈은 다시 재촉했다.

《그렇다, 우리는 아동단원이다!》

《통신을 가지고 가댔지? 그것만 말하면 상도 주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겠다. 난 대장이기때문에 거짓말을 안한다. 상을 타가지고 집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니.》

그놈은 룡남이를 슬슬 얼리려들었다.



《우리는 아동단원들이다. 아동단원은 그런 꾀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아무리 얼리여도 말을 안 듣자 대장놈은 약이 버쩍 올라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때리라고 졸병놈에게 호통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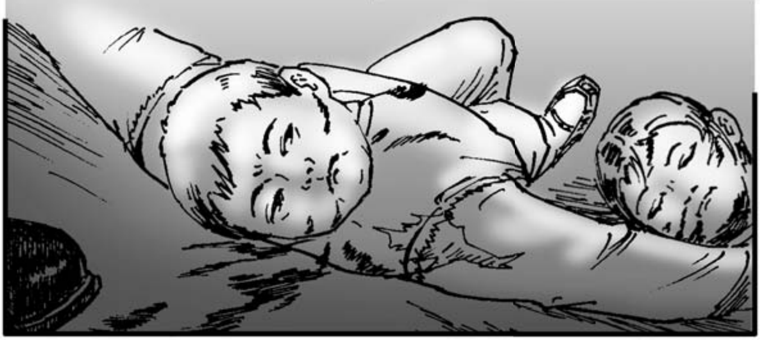
모진 고문으로 룡남이와 명숙이가 기절을 하자 놈들은 담배를 꼬나물고 그들이 깨여나기를 기다렸다.

한참만에야 어렴풋이 정신을 차린 룡남이는 자기곁에 쓰러져있는 명숙이를 살펴보았다.













명숙이의 머리에는 온통 피가 묻어있었다.

룡남이는 명숙이의 머리에 묻은 피를 자기 팔소매로 씻어주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명숙이는 룡남이의 손을 꼭 쥐였다.









룡남이와 명숙이가 깨여나 정신을 차리자 악독한 놈들은 그들을 말꼬리에 매여달고 말을 몰았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눈우로 질질 끌려갔다.

눈우에는 그들이 흘린 피가 붉게 물들여졌다.







그놈들은 말을 몰고 길청령마루까지 와서는 말을 멈춰세우고 다시 묻기 시작하였다. 이미 명숙이는 정신을 잃어 아무것도 몰랐다. 다만 룡남이만이 놈들의 물음에 《모른다!》라는 말을 할뿐이였다.

그러나 룡남이도 얼마 안있어 까무러치고 말았다.





대장놈은 그들이 또다시 정신을 차리자 돼지멱따는 소리로 뇌까렸다.

《이젠 마지막이다. 대답할테냐, 안할테냐?》

룡남이는 벌떡 일어서서 힘차게 말하였다.

《내 이름은 아동단원 강룡남이다!》

《응, 그래야지. 그리고 또…》

《이애는 아동단원 박명숙이다!》



《무엇하러 가댔는가 말이다?》

《네놈들을 쳐부셔달라고 유격대에 련락을 가댔다.》

《뭐, 유격대! 어데로? 어디로 가댔는가 말이다.》

《죽어도 그것만은 대줄수 없다. 아동단원은 비밀을 목숨으로 지킬것을 붉은 기발 앞에서 맹세했다.

그리고 아동단원은 세상에서 가장 비렬한것은 개질하고 변절하며 거짓말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약이 바싹 오른 대장놈은 가죽장갑을 탁탁 치며 《총살하라!》고 소리쳤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서로 의지한채 굳세게 서서 추위와 공포에 떠는 원쑤놈들을 쏘아보았다.





그들의 눈앞에는 유격대원인 아버지의 얼굴과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과 아동단원들의 얼굴이 차례차례 떠올랐다.





룡남이는 고개를 번쩍 들어 멀리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을 바라보았다.

(**김일성**장군님! 우리는 아동단원답게 비밀을 지키고 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아동단원답게 비밀을 지켜 원쑤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 원쑤를 갚아주십시오.)



룡남이는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원쑤놈들을 향해 소리높이 웨쳤다.

《…우리에게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신다.》



김일성장군이란 말에 질겁한 놈들은 방아쇠를 당겼다.

그들은 마지막힘을 다하여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혁명… 만… 세!》

룡남이와 명숙이는 눈우에 쓰러졌다.

용감한 두 소년은 **김일성**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참된 아동단원답게 혁명과 조직의 비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처럼 아동단원들은 붉은 기발앞에서 다진 자기들의 굳은 맹세를 훌륭히 실천하였으며 혁명의 거세찬 폭풍우속에서 조국의 훌륭한 꽃봉오리로 붉게붉게 피여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난 나어린 혁명가들의 눈부신 활동과 그들의 피어린 투쟁은 유격구를 지키는데 있어서 크나큰 힘이였을뿐아니라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의 자기의 고귀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빛나는 투쟁의 기록이였으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한 부분이였다.

림강현 외차구전투



《림강현 외차구전투》는 항일혁명투사
박성철선생님의 회상기를 각색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적계획에 의하여 우리 부대는 1938년 봄부터 집안, 통화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38년 10월에는 림강에 있는 부대들과 련합하여 대부대로써 발악적으로 날뛰는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더욱 큰 타격을 주기 위하여 다시 림강밀영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대로 도처에서 수많은 적들을 격파분쇄하고 다시 그이께서 계시는 주력부대를 찾아가게 되였으니 그 기쁨은 무엇에도 비길수 없었다.



외차구전투는 바로 이러한 행군과정에 첩첩히 둘러싼 적들의 포위를 돌파해야 하는 간고한 전투였다.

적들은 우리가 외차구골안에 들어서기 전날에 이미 비행대를 동원하여 《투항하라!》는 삐라를 뿌렸다.

그리고는 삐라에 우리가 통과해야 할 외차구일대의 지형을 그려놓고 14개 련대가 우리를 《기다리고》있다고 《위협》을 했다. 그것은 적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포위작전》이였던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림강으로 가야하며 림강으로 가자면 어차피 외차구골안의 적들을 격파해야 한다는 확고한 일념으로 불타올랐다.

가렬한 전투속에 해질무렵에야 외차구골안에 들어선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휴식장소를 정하게 되였다. 외차구지형은 골짜기 한가운데 나지막한 봉우리가 있고 동북쪽은 약간 펑퍼짐한 령마루이며 동남쪽은 깎아지른듯 한 절벽이 둘러있었다.

우리는 골안복판에 있는 낮은 봉우리에 기관총중대를 중심으로 수십명의 보초를 배치하고 부대전원이 휴식을 하였다.



이러한 때에 적들은 그 부근에서 1만여명의 자위단과 반동주구들을 더 동원하여 우리를 사방으로 한겹 더 포위했다. 모두 합하면 2만～3만명의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겹겹이 성을 쌓은셈이였다. 이러한 속에서 하루밤이 깊어갔다. 적들은 날이 밝기 전부터 기관총을 란사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비행기를 동원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아군의 동향을 정찰하여 지상에 있는 적들에게 알리는 한편 사격을 지휘했고 직접 기총사격을 퍼붓기도 했다. 동시에 적들은 점점 더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이때 아군은 3개 대오로 나뉘여서 일부는 방어를 하고 또 일부는 깎아지른듯 한 동남쪽 벼랑으로 기여오르고있었다. 적들은 벼랑우에서 내리쏘고 우리는 벼랑아래서 올려쏘면서 벼랑우를 향해 계속 한걸음한걸음 기여올랐다.

이렇게 한 고지를 빼앗으면 또 다음고지에 적이 있었다. 동시에 우측릉선에서 중기를 쏘며 달려드는 왜놈들과 산아래쪽에서 추격해오르는 왜놈들이 죽기내기로 덤벼들었다. 적탄은 머리우에서도 쏟아지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어디서나 비발치듯 날아왔다.



아군은 참으로 위급한 처지에 빠졌다. 지휘부에서는 잠시 전진을 멈추고 진지를 꾸리면서 방어전을 하며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그대로 아군은 전체가 한덩어리로 되여 전후좌우로 맹렬한 반격을 가하였다.

제3련대의 련대장인 박선봉동지도 직접 보총을 잡고 싸웠다. 그는 보총 2개를 놓고 련락병에게 탄알을 재우게 하면서 계속 사격을 하였는데 그의 명사격에 의하여 쓰러진 적만 하여도 80여명이나 되였다. 이와 같이 전 부대의 기관총, 보총의 맹렬한 사격은 잠시동안에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그러나 수적으로 많은 적들은 쓰러지면서도 계속 그뒤를 이어 달려들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위만군들이 있는 벼랑우에서도 왜놈들이 시누렇게 내려왔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등뒤에서였다.

이때 박선봉련대장은 나를 향하여 소리쳤다.

《1중대는 고지우의 적을 맡으라. 아래쪽의 적은 내가 맡을테다.》

이리하여 우리는 3번째로 달려드는 적들을 전후좌우에 두고 맹렬한 불을 뿜었다.



이렇게 가렬한 전투가 진행되고있을 때였다.
나의 옆에서 싸우던 련락병 김익현동무가 다급히 소리쳤다.
《중대장동무, 련대장동무가 희생됐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련대장동무가 있던 곳을 돌아보았으나 그땐 희생된 련대장을 업은 동무들이 골짜기아래로 내려간 뒤였다.
《놈들을 모조리 죽이라!》
나는 이렇게 웨치면서 기여오르는 적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중대전우들도 일제히 맹렬한 불을 뿜었다. 적들은 그야말로 삼대 쓰러지듯 했다.



이윽고 해가 졌다. 해가 지자 적들은 더 달려들지 못하고 사방에 불을 피웠다. 약 5m 간격에 하나씩 피운 우등불무지는 거의 20리주변을 빙 둘러 불바다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여 놈들은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며칠이라도 지내면서 아군이 투항하기를 기다릴 태세를 취하였다.

총소리 한방 들리지 않는 외차구골안에는 사방에서 놈들의 전호파는 소리와 인공장애물을 만드는 도끼질소리, 메질소리가 소란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소리와 순찰대놈들이 악을 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렇듯 첩첩한 포위속을 돌파하자면 결사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휘관들의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어느 중대가 돌격대의 선봉이 되여 적들의 포위선을 뚫고 부대의 퇴로를 개척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그 임무가 우리 중대에 맡겨졌다. 마지막결사전을 각오한 나는 전체 대원들에게 배낭에 있는 사품들을 일체 소각해버리게 했다. 그리고 보병총에는 날창을 꽂고 탄알은 6발씩 재우게 했다. 이 탄알을 쏘면 다음탄알을 재울짬도 없겠으니 그대로 육박전을 전개할 결심이였다. 수류탄은 모두 앞에 차게 하였다.



이윽고 행동을 개시하라는 신호가 내렸다.
우리는 산벼랑을 가로지르면서 적들의 불무지와 불무지사이를 목표로 하고 기여나갔다. 이렇게 얼마쯤 기여가던 우리는 마침내 적들의 불무지가까이에 이르렀다. 불무지마다 수십명씩의 적들이 총을 들고 서서 경비를 서고있었다. 나는 불무지를 정면으로 습격한다면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불무지의 적들도 우리에게 쏠릴것이며 그러면 그 사이에 아군이 빠져나갈수 있다는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그래서 불무지와 불무지사이를 뚫으려던 생각을 버리고 정면으로 적의 불무지를 습격소탕하기로 하였다.



이럴 때에 적들도 우리를 발견하였다.

《누구냐?》 하고 적들이 고함을 치자마자 우리는 일제히 불을 뿜으며 계속 밀고들어갔다. 정면의 적들이 불속에 거꾸러지고 좌우에 있던 적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적들의 경기관총 2정을 로획하여가지고 더욱더 맹렬한 불을 뿜었다.

이 틈에 우리는 동남쪽 령마루를 점령하고 아군부대의 퇴로를 엄호했다. 지휘부는 적들이 우리 중대에 쏠리는 틈을 리용하여 헤쳐진 공간으로 급히 탈출하였고 수림주변에 있는 적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우리가 고지를 내려설 때에는 그 고지후면에 있는 적들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우리를 엄호하여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고지로 오르는 때 나팔로 신호를 하였다. 지휘부와 기본부대를 만난 우리는 계속 싸울 준비를 하면서 급히 행군을 시작했다. 어두운 밤이라 적들은 우리를 추격할수 없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림강밀영지에 도착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들은 3 000여명의 손실을 보았다.

이렇듯 우리는 외차구전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의 불패성과 위력을 시위하였다. 동시에 이 전투에서 조선혁명가들의 영예를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회상기그림책
림강현 외차구전투

편 집 정향애 그 림 한명신, 김금현
장 정 한명신 교 정 백수향

냰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모 란 봉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8(2019)년 2월 10일
발 행 주체108(2019)년 2월 20일

ㄱ-1863506 값 300원

ISBN 978-9946-21-566-2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자라며 용감하게 싸운 아동단원들



림강현 외차구전투



ISBN 978-9946-21-566-2